

2025년 11월 넷째주 주일 대표 기도문

2025년 11월 넷째주 주일 대표 기도문

2025년 11월 넷째주 주일 대표 기도문으로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예배를 준비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귀한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11월 넷째주는 한 해의 끝자락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를 돌아보며 깊은 감사를 드리는 소중한 시기입니다. 또한 다가오는 성탄절을 준비하며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때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대표 기도를 통해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기도하며, 새로운 한 해를 향한 소망과 비전을 품어가시길 소망합니다.

2025년 11월 넷째주 주일 대표 기도문1 - 감사와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 시편 105:1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무릎 꿇고 나아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저희에게 베풀어주신 크고 작은 은혜들을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봄부터 겨울까지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합니다. 때로는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그 모든 순간들조차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건강을 주시고, 가족을 지켜주시고, 일터에서 동역자들과 함께 수고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새로운 가족들이 교회에 등록하여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청년들이 말씀 안에서 자라가며,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이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십일조와 헌금을 통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며 복음 전파에 쓰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배우며 신앙의 터를 단단히 쌓아가고, 청소년들이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찾아가며, 청년들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어려운 상황들을 겪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2025년 11월 넷째주 주일 대표 기도문2 - 회개와 용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 요한일서 1:9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돌아보며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도 때로는 감사하지 못했고, 은혜를 입고도 교만했던 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가족들에게 사랑으로 대하지 못하고 화를 낸 순간들, 이웃을 배려하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던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직장에서 정직하지 못했던 일들, 작은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던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예배에 마음을 다해 참여하지 못했고, 기도 생활이 미흡했으며, 말씀을 듣고도 삶에 적용하지 못한 게으름을 고백합니다. 성도들과의 교제에서 사랑하지 못하고 판단했던 마음, 섬기지 못하고 받기만 원했던 이기심을 용서해 주옵소서. 특히 이 어려운 시대에 세상의 아픔을 외면하고 내 안위만 생각했던 무관심을 회개합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지 못했고,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담대하지 못했던 부끄러움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앞에서 저희는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들을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2025년 11월 넷째주 주일 대표 기도문3 - 성탄절 준비와 소망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 마태복음 1:23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제 성탄절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천여 년 전 베들레헴 마을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묵상하며 감격에 겨워 기도드립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단순한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구주이심을 고백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가 여전히 남아있고,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는 이 시대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는 이 시기에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상업적이고 세속적인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깨달아 가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선물을 주고받는 즐거움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가는 은혜로운 절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성탄 행사들이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시고,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가족들과 친구들, 직장 동료들이 이 기회를 통해 구원의 소식을 듣게 해 주옵소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배우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게 해 주옵소서. 또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성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독거 어르신들, 한부모 가정,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이 따뜻한 성탄절을 보낼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섬기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탄생이 이 땅에 평화와 소망을 가져다주었듯이, 저희의 삶을 통해서도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취지게 해 주옵소서.

2025년 11월 넷째주 주일 대표 기도문4 - 새해를 향한 비전과 헌신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 예레미야 29:11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2025년도 이제 한 달여 남겨두고 새로운 2026년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한 해가 어떤 모습일지 기대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개인적으로는 영적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우게 해 주옵소서. 매일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기도 생활을 더욱 깊이 있게 해 나가고, 성경 통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욱 명확히 깨달아 가게 해 주옵소서. 또한 전도와 선교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가정에서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서로 사랑하는 신앙의 가정을 이루어가게 해 주옵소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며, 형제자매들은 서로 아끼고 돌보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직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며, 동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일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어려운 경제 상황이 지속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혜롭게 대처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로서는 더욱 연합하고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로운 성도들이 많이 등록하여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기존 성도들은 더욱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가게 해 주옵소서. 각종 사역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고,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2026년 한 해 동안 저희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앞에 펼쳐놓으신 새로운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며,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더 많은 주일 예배 자료와 기도문이 필요하시다면 [한국침례교회 예배 자료] (<http://klmc.church/klmc/worship/sunday-worship.do>)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기도문 보러가기:

{대표 기도문 나눔터} <https://prayer-church.co.kr/>